

포덕 159년

신년사



포덕 159년 1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포덕 159년

신년사



포덕 159년 1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신년사

1. 합동배례

1. 천덕송 합창_ 제17장 공락가 / 1절-3절

1. 만세삼창

1. 심 고

1. 폐 식

신년사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포덕 15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도가에 한울님의 감응이 함께하시고, 우리 교단도 대도중흥 보국안민 포덕광제의 목적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교단 내적으로도 대도중흥 비전 21이라는 교단발전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하고 계승 발전시켰던 한해였습니다.

천도교의 신앙과 사업의 기본은 수련인 만큼 동·하계 특별수련기간을 제외하고는 월례수련을 정례화 하

여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였고, 순회활동을 강화하여 포덕 2500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인내천운동사업과 동학정신선양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를 재건하여 의암성사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을 한해는 “목전지사 쉬이 알고 심량 없이 하다가서 말래지사 같잖으면 그 아니 내 한인가” 하신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난해까지 의욕적으로 펼쳐낸 사업들의 내실을 다져서 안정적인 추진일정을 구축하고, 그 결과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 우리 한국은 일제강점이나 남북분단과

동족상쟁, 그리고 외환위기 등의 숭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의 이면에 수운대신사 이래로 순도순국하신 선열들의 살신성인하는 보국안민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매김한 인권존중, 남녀평등, 민주주의, 생명평화, 어린이존중 등의 가치는 일찍이 천도교의 인내천운동과 신문화운동이라는 양대 운동을 통해서 제안되고, 실현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난한 과정을 힘겹게 이끌어오는 동안 기본적인 동력의 주체가 되었던 천도교가 오늘날 외형적으로 위축되고 도전, 재전, 언전의 각 방면에서 열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천도교단 및 천도교인의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내천의 근본적 진리가 구현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사회,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이룩한 물질문명의 이면에는 지구환경의 위기와 함께 생태계 전체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는 근본적인 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천도교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한울님의 뜻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돌아보면서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인사대천명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대도중흥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면한 핵심과제 중 하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의암성사께서 이룩한 300만 교단이 일제강점기에 탄압과 분열정책으로 고난에 처했다가, 결정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은

바로 남북분단 때문이었습니다. 분단된 남쪽 사회는 서구의존의 사회체제가 고착화됨으로써 정치경제적인 국제관계 역학과 맞물려 외래 종교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민족 자생의 천도교단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점점 더 좁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통일은 이 땅에 복지국가, 문화국가, 정의국가로서의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출발점이라는 데서 그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의 모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연대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의 3·1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3·1운동 100주년을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를 통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 출범식을 거행한 “인내천운동연합”에서도 인내천을 통한 영성의 구현이라는 제1의 목

표 다음으로 설정한 것이 인내천 정신으로 남북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의 통일 기운 조성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기운을 배경으로 해야 하며, 또 그러한 평화세계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북녘의 동덕 여러분! 그리고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교역자 여러분!

저는 포덕 15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북의 천도교인들 모두가 한울님의 감응으로 안심안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올해는 반드시 남과 북의 천도교인들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물꼬를 터나가는 선구적인 역할에 앞장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남과 북의 실무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적극 호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허심탄회한 도담을 통해

천도교 자주사상의 반석 위에 3·1정신을 계승하여 평화와 상생의 통일을 향한 일보를 내디딤시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해월신사께서는 용시용활 편에서 “우리 도는 오만년의 미래를 표준함에 있어, 앞서 때를 짓고 때를 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도교인의 시선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까지 닿아 있어야 하며,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천도교 미래 준비의 일환으로 천도교중앙도서관을 개설하고, 현도기념식에 개관 봉고식을 봉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겨울의 얼음 속에 흐르는 봄의 기운을 찾아 마음을 기울이는 정성이며, 천도의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공경의 몸짓이라 할 것입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의암성사께서는 “도가 또한 세상에 있으니 만약 쓰임을 말하지 않으면 도가 끊어지고 세상이 거칠어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근본이 굳건치 못하면 잎이 푸르지 못하고 꽃도 붉지 못할 것”이라 하시고, “그 근본이 맑지 못하면 봄도 오지 아니하고 가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금 수심정기하고 우리의 근본을 상고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봄이 오고, 그 봄 햇살에 우리 동덕들 모두가 심화기화 하여 만사여의 하시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심고 하면서 신년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59(2018)년 1월 1일

천도교 교령 이 정 희 심고

제17장 공락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에 소 리 소 리 울 리 -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리 세 간악 마 도 망 하니
 3. 천 도교 의 거 록 한-덕 널 리 널 리 퍼 -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람 은 누리 에 부 - -니

1. 깊 은 밤 에 잠 -든 세 계 놀 -라 깨 도 다
 2. 승 전 고 틀 울 리는 곳 에 궁 을 기 날 도 다
 3. 함 포 고 복 우 -리 인 류 서 로 노래 하 세
 4. 화 흥 초 록 봄 - 언덕 에 온 갓 새 부르 짓 네

후렴

든 도 보 도 못 -한 이 - 품 류 에

한 울 나 라 한 울 백 성 같 이 즐 기 세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